KAIST · 서강대

2026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

2026 Human Origins Summer School

2026년 8월 10일(월) ~ 12일(수)
KAIST 대전 본원 메타융합관(W13) 1층 컨퍼런스룸

주최 · 주관
KAIST 뇌인지과학과 · 서강대 종교연구소 인지행동과학센터

WELCOME

인간의 기원을 묻는 자리

2026년에도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가 돌아옵니다. 과학 분야에서 점점 근본적인 질문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시작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분업, 종교성, 양육, 불평등, 죽음, 차별, 의식, 움직임 등 인간의 다양한 면모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넘나들며 초학제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간행동생태학이라는 관점을 놓고 연구자들이 함께 벌이는 패널토론도 마련했습니다. 뇌인지과학, 신경과학, 생명공학, 영장류학, 진화인류학, 인지종교학, 철학을 아우르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북은 3일간의 일정과 각 강연의 요약, 강연자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 면은 강의를 들으며 메모하실 수 있도록 비워 두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인간의 기원'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TIME TABLE

전체 일정

8월 10일 (월)

10:00–10:30	학회 등록
10:30–10:45	개회사 및 인사말
10:45–12:00	**남성 사냥꾼 여성 채집자 가설 – 분업의 기원** 김준홍 ·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12:00–13:15	점심
13:15–14:30	**종교성의 기원: 실험심리학의 좌충우돌 도전기** 구형찬 · 서강대 종교연구소 인지행동과학센터장
14:45–16:00	**차별의 기원: 나쁜 유전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생존 전략** 정우현 · 덕성여대 약학과 교수
16:15–17:30	**맹자적 관점에서 본 선한 본성의 기원** 이권우 · 도서평론가
17:30	Banquet (저녁식사, 대강당 로비)

* 모든 강의 세션은 60분 강의와 1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ME TABLE

전체 일정

8월 11일 (화)

9:30–10:45	**양육의 기원: 영장류 어미는 자기희생적인가 전략적인가** 이보윤 · 일본 SOKENDAI 박사후펠로우연구원
11:00–12:15	**불평등의 기원: 인간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황준 · UC Santa Barbara 박사후연구원
12:15–13:15	점심
13:15–14:30	**'좋은 죽음'의 기원: 종교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김유리 · 서강대학교 ACKR 연구교수
14:45–16:00	**시공간 인지의 굴절적응: 예비적 진화 가설** 박한선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16:15–18:00	패널 토론: 인간행동생태학이라는 관점에 관하여 (패널: 이보윤, 황준, 김유리 · 사회: 박한선)

8월 12일 (수)

9:30–10:45	**환각의 스펙트럼: 의식의 기원, 상태, 변성** 문규민 · 동국대 철학과 교수
11:00–12:15	**움직임의 기원: 인지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한정규 ·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구원
12:15–12:30	폐회사

CONTENTS

강연 목차

01	**남성 사냥꾼 여성 채집자 가설 – 분업의 기원** 김준홍 ·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5
02	**종교성의 기원: 실험심리학의 좌충우돌 도전기** 구형찬 · 서강대 종교연구소 인지행동과학센터장	7
03	**차별의 기원: 나쁜 유전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생존 전략** 정우현 · 덕성여대 약학과 교수	9
04	**맹자적 관점에서 본 선한 본성의 기원** 이권우 · 도서평론가	11
05	**양육의 기원: 영장류 어미는 자기희생적인가 전략적인가** 이보윤 · 일본 SOKENDAI 박사후펠로우연구원	13
06	**불평등의 기원: 인간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황준 · UC Santa Barbara 박사후연구원	15
07	**'좋은 죽음'의 기원: 종교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김유리 · 서강대학교 ACKR 연구교수	17
08	**시공간 인지의 굴절적응: 예비적 진화 가설** 박한선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19
09	**환각의 스펙트럼: 의식의 기원, 상태, 변성** 문규민 · 동국대 철학과 교수	21
10	**움직임의 기원: 인지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한정규 ·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구원	23

01

8월 10일 (월) · 10:45–12:00

남성 사냥꾼 여성 채집자 가설 – 분업의 기원

Man the hunter Woman the gatherer hypothesis – The origin of division of labor

---

김준홍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강의 요약

인류학계의 유명한 논쟁인 남성 사냥꾼 vs. 여성 채집자 가설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평가하고, 인류진화사 및 수렵채집사회의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두 모델을 평가한다. 남녀의 분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생태적, 진화적 이유를 설명하며, 비교문화적으로 분업의 양상이 달라지는 이유, 남성 사냥의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남녀의 분업은 생물학적 우열이 아닌 과거의 척박한 환경과 물리적 제약 하에서 생존을 위한 '생태적 적응'이다. 마지막으로 보육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달라진 현대 사회에서 남녀 분업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강연자 소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교에서 생물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동과 본성을 포함한 인간의 많은 형질이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유전자 - 문화 공진화론자이다. 인간 협동의 진화, 문화의 계통발생도, 인간 문화의 고유성 등을 유전자 - 문화 공진화론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02

8월 10일 (월) · 13:15–14:30

종교성의 기원: 실험심리학의 좌충우돌 도전기

The Origins of Religiosity: Adventures in the Experimental Psychology of Religion

---

구형찬 서강대 종교연구소 인지행동과학센터장

강의 요약

인간은 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종교적일까? 이 오래된 질문에 실험심리학은 어떻게 접근해 왔을까? 본 강연은 조너선 종(Jonathan Jong)의 저서 『종교를 실험하다(Experimenting with Religion)』를 길잡이 삼아, 종교성의 기원과 기전을 실험적으로 탐구해 온 연구자들의 여정을 소개한다. 죽음에 대한 감각, 신에 대한 믿음, 초자연적 행위자 탐지, 의례와 동조, 마음이론과 신 개념 등 현대 종교심리학의 주요 실험 연구들을 살펴보며, 연구자들이 품었던 궁금증과 질문, 연구설계의 창의성, 예상을 빗나간 결과, 그리고 재현성 위기 속에서 드러난 성공과 실패의 기록을 함께 검토한다. 실험심리학이 종교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단일 분과의 방법론이 지닌 한계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강연은 종교성이라는 복합 현상의 해명을 위해 심리학, 진화인류학, 인지과학, 종교학을 아우르는 초학제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강연자 소개

인지종교학자. 인지과학과 진화인류학의 관점에서 종교와 문화를 탐구한다.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인지행동과학센터장,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연구교수.

03

8월 10일 (월) · 14:45–16:00

차별의 기원: 나쁜 유전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생존 전략

The Origins of Discrimination: How Fear of 'Bad Genes' Shaped a Survival Strategy

---

정우현 덕성여대 약학과 교수

강의 요약

유전자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몰이해는 세계의 역사를 여러 차례 뒤흔들며 그 흐름마저 바꾸어 왔다. 좋은 유전자를 얻고자 하는 갈망과 나쁜 유전자를 향한 혐오와 두려움은 인간에 부당한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구분 짓기는 역사 내내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차별과 폭력의 논리로 악용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첨예화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유전자에 지능 유전자, 범죄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와 같이 온갖 불편한 딱지를 붙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유전자 탓을 해도 좋은가? 지금은 과거의 오류를 되짚고, 유전자가 실제로 말해주는 바와 인간이 그것에 덧씌운 의미를 냉철하게 구분해내는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우리는 유전자 결정론을 둘러싼 담론을 다시 성찰하고, 그 과학적 실체와 사회적 신화를 구분하고자 한다.

강연자 소개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같은 대학원 생명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와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암생물학과 분자유전학을 연구하며 여러 논문을 썼다. 생물학에는 다른 과학에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교양과학서 『생명을 묻다』, 『나쁜 유전자』 등을 썼다.

04

8월 10일 (월) · 16:15–17:30

맹자적 관점에서 본 선한 본성의 기원

The Origins of Human Goodness, A Mencian Perspective

이권우 도서평론가

강의 요약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이타적 본성을 둘러싼 논쟁은 기실 2300년전 전국시대에 촉발된 바 있다. 이때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설파한 철학자 바로 맹자인데, 인간은 인의예지의 덕성을 타고 난다고 보았다. 이번 강연은 맹자의 성선설이 오늘의 진화철학에 의해 어떻게 이론적으로 지지 받는지를 살펴보고, 맹자가 성선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철학을 정초하고자 했는지 살펴본다.

강연자 소개

도서평론가

05

8월 11일 (화) · 9:30–10:45

양육의 기원: 영장류 어미는 자기희생적인가 전략적인가

The Origins of Mothering: Are Primate Mothers Self-Sacrificing or Strategic?

이보윤 일본 SOKENDAI 박사후펠로우연구원

강의 요약

양육은 자기희생을 동반하거나 그래야 한다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양육자가 실제로 직면하는 과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자신의 생존 활동(섭식, 이동, 사회 활동 등)을 양립시키는 것에 가깝다. 본 강연은 강연자가 야생 야쿠시마 원숭이(Macaca fuscata yakui)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한 두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어미들이 양육과 생존 활동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어미 원숭이가 어떤 상황에서 새끼의 수유를 허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어미가 수유에 따른 부담을 자신의 활동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새끼가 사망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운반과 털고르기를 지속한 어미의 행동 변화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가 죽은 새끼를 돌보는 일과 자신의 생존 활동을 양립시키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두 연구를 통해 양육을 자기희생이 아닌 조절과 균형의 과정으로 바라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양육자와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나아가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엄마'에 대해서 재고해본다.

강연자 소개

일본 규슈 남부에 위치한 섬 야쿠시마에서 야생 일본원숭이의 행동 및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영아의 능동적인 사회 발달과 독립, 육아의 사회적 맥락에 관심이 있다.

06

8월 11일 (화) · 11:00–12:15

불평등의 기원: 인간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The Origins of Inequality: Insights from the Human Behavioral Ecology

---

황준 UC Santa Barbara 박사후연구원

강의 요약

평등은 인간의 자연상태인가?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에서 지배 위계가 널리 관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상태라기보다 지배를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로 이동이 제약되고, 군집되고 예측 가능한 자원을 방어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하거나, 물질적 재산이 세대 간에 상속될 때 개인 간 차이는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불평등은 농경이나 문명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자원의 분포와 이동성, 협력과 상속을 둘러싼 조건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사회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강연자 소개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인류학과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화인류학과 인간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방글라데시 농촌사회의 협력과 불평등을 연구하며,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이동과 생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

07

8월 11일 (화) · 13:15–14:30

'좋은 죽음'의 기원: 종교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The Origins of the "Good Death": Insights from the Human Behavioral Ecology of Religion

---

김유리 서강대학교 ACKR 연구교수

강의 요약

'좋은 죽음'을 생각하면 흔히 평온한 죽음을 떠올리지만, 정작 그 의미는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 전염병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나쁜 죽음'을 마주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우리는 왜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분향소를 차리거나 추모의 글을 남기는 등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까? 그리고 그 행동은 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까? 이 강의는 이러한 질문을 종교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여기서 종교는 교리나 믿음의 체계라기보다,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응하는 행동 전략이라는 제한된 분석적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국가의 재난의례인 여제(厲祭)를 사례로 검토한다. 국가가 어떤 조건에서 재난에 의례적으로 응답했는지, 그 대응이 구휼이나 방역과 같은 세속적 조치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나쁜 죽음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사회적·종교적 행동으로 조직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강연자 소개

서강대학교 ACKR 연구교수.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와 서강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의 죽음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의례적 행동을 연구한다. 최근에는 종교행동생태학의 관점에서 '민속종교'를 인간의 다양한 종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 틀로 재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08

8월 11일 (화) · 14:45–16:00

시공간 인지의 굴절적응: 예비적 진화 가설

Exaptation of Spatiotemporal Cognition: A Preliminary Evolutionary Hypothesis

---

박한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강의 요약

인간의 시간 인지는 공간 인지의 굴절적응 산물이다. 해마-내후각 회로는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와 시간세포를 함께 보유하며, 이 구조는 설치류부터 영장류까지 보존되어 있다(Buzsáki & Moser, 2013). 해마 손상 환자는 과거 회상과 미래 상상에서 동형의 결손을 보이는데, 이는 두 기능이 동일한 신경 기반을 공유한다는 신경학적 근거다(Hassabis & Maguire, 2007). 이동과 탐색을 위해 진화한 항행 기제가 시간 축으로 전용되면서,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구성하는 능력과 더불어 쌍곡선형 시간할인 같은 체계적 왜곡을 함께 획득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예비적 가설을 소개하고, 해당 가설이 다양한 부적응적 인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설의 제한점에 대해 살펴본다.

강연자 소개

서울대 인류학과 진화인류학 교실 조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 전임의, 서울대 의생명연구원·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호주국립대 CASS 석사,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

09

8월 12일 (수) · 9:30–10:45

환각의 스펙트럼: 의식의 기원, 상태, 변성

The Spectrum of Hallucination: The origins, states, and alterations of consciousness

---

문규민 동국대 철학과 교수

강의 요약

우리는 왜 세상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할까? 최근 의식과학은 의식을 외부 세계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뇌가 끊임없이 세계를 예측하고 갱신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본 강연은 예측처리(Predictive Processing)와 자유에너지 원리(Free Energy Principle)를 중심으로, 의식이 어떻게 출현하며 서로 다른 의식 상태들이 어떠한 원리 아래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 임계 뇌(critical brain)와 엔트로픽 뇌(entropic brain) 가설을 결합하여, 각성, 꿈, 환각, 명상, 환각제 경험 등 다양한 의식 상태를 하나의 연속체 위에서 조망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상 의식을 환각의 반대편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이고 잘 제어된 환각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의식은 세계를 수동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세계를 가장 그럴듯하게 구성해 내는 예측의 역동적 산물이다. 본 강연은 최신 의식과학의 흐름을 바탕으로, 의식의 기원과 변성을 하나의 통합적 틀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길을 제안한다.

강연자 소개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인도불교학 연구로 석사 학위를, 의식과 형이상학적 양상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로 형이상학, 심리철학, 인식론 등을 연구하며, 전문 분야는 현대 존재론의 흐름들과 의식 과학이다. 주요 논문으로 <Making Sense of Consciousness as Integrated Information>, <Exclusion and Underdetermined Qualia>, <도덕의 방 속 한니발>, <라투르와 일반화된 행위성> 등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 『신유물론 입문: 새로운 물질성과 횡단성』(2022), 『제인 베넷』(2024)이 있다. 최근에는 인류학과 체계 이론, AI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0

8월 12일 (수) · 11:00–12:15

움직임의 기원: 인지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The Origins of Movement: Insights from the Neurobiology of Cognition

---

한정규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구원

강의 요약

자연은 본질적으로 동적이다. 세포 안의 분자 운동에서부터 생태계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한시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이 흐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세계를 스냅샷처럼 잘라 정적인 표상으로 재구성하며, 그 정적인 표상 위에서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수행한다. 이 강연에서는 움직이려는 자연의 본성과, 그것을 멈추어 세우려는 인간 인지의 본성 사이의 투쟁을 다윈이 공통조상을 추적하듯 여러 학문 분야를 가로질러 탐색한다.

강연자 소개

서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구원. 연세대학교에서 생명공학, 서울대학교에서 뇌인지과학을 공부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학습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우울증 · 조울증 ·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 질환을 통해 인지 · 감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했다. 신경과학과 철학 사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체화인지학회, 한국과학철학회, 뇌신경철학연구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인공지능과 의식』이 있다.

INFORMATION

안내

참가자 포털

human-origins.com
프로그램 확인, 관심 강연 별표,
출석 체크인, 사무국 문의.

출석 체크인

행사장에 게시된 당일 출석 QR을
참가자 포털에서 스캔해 주세요.
출석은 하루 한 번이면 됩니다.

인간의 기원 아카이브

2023 · 2024 · 2025 여름학교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uman-origins.com

여름학교 앨범

THE CORE (ACKR)
주제가와 오프닝 뮤직 등 10곡.
포털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uman-origins.com/album.html

식사

점심(10·11일)은 학생회관 서측식당(W2).
12시 20분부터, 식권은 등록 데스크에서.
10일 저녁 만찬은 대강당 로비.

다과 공간

메타융합관 1층 회의실(105호) 월~수,
강의실(106호) 화~수에 다과를 두었습니다.
수료증은 등록 데스크에 말씀해 주세요.

문의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 사무국
humanorigins710@gmail.com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
human-origins.com

SUPPORT

후원 안내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어집니다. 후원금은 강연자 초청, 자료집 제작, 행사 운영에 쓰입니다.

후원 계좌

은행	**카카오뱅크 (Kakao Bank)**
계좌번호	**7942-04-30655**
예금주	**구형찬(인간의기원)**

신청 방법

포털(human-origins.com)의 후원금 메뉴에서 신청해 주세요. 접수되면 안내 메일을 보내 드리고, 입금이 확인되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입금자명

확인이 빠르도록 "홍길동후원"처럼 이름 뒤에 '후원'을 붙여 주세요.

후원자 명단

동의해 주신 분에 한해 이름과 남겨 주신 말을 포털에 소개합니다. 후원 금액은 공개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으시면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영수증

간이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기부금 증빙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NOTE

HUMAN ORIGINS SUMMER SCHOOL

2026 인간의 기원 여름학교는 인류 보편의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해온 학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공개 토론에 참여하는 초학제적 학술 행사입니다. 뇌, 의식, 행동, 문화, 종교를 비롯해 인류와 문명의 기원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과학적이면서도 폭넓은 관점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KAIST 뇌인지과학과 · 서강대 종교연구소 인지행동과학센터
human-origins.com